

2016년 12월 20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노인회관, 송정희 조사.  
김보배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**[제보자]** 옛날에 아들 성제하고 어멍하고 이제 살아 그 동네를 살아. 살안 허난 이제 그 동네 집에 아덜 그 놈이 집이 동네 집이 놀러간 보니깐, 막 꿩을 잡아다가 꿩을 잡아다가 꿩탕을 헹 먹는 거라. 먹으난 그 어멍은 이제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온 거라. 먹고 와네. 아덜덜?라.

“아이고 요집인 간 보난에, 막 꿩을 잡아다가 이제 먹다가 먹없이난 나가 먹어 오간에.”

경 허난 그 아덜 성젠

“우리도 낼 꿩 잡으레 가자.”

“꿩 잡으레 가자.”

게난에 꿩을 잡으레 간 거라. 꿩을 잡으레 가난에. 이젠 저 성?란 그물을 놔 그네 이젠 그물을 놔 이 그물을 성?라 지키렌 허곡 이녁은 그 우에 올라가그네 꿩을 달레민 여기 완 걸어진다 허는 거라. 성?라. 경 허난 아 이젠 아신 올라간 막 그 꿩을 다울리단 보난 막 그물에 완 막 걸어진 거라. 걸어지난 그 성은 명청 허니깐 아 그 꿩을 다 때멍 들러데껴 분 거라. (웃음) 들러데껴 벤 이젠 와네.

“성님 이디 꿩 아니 왓입디가?”

영허난

“아이 저 앞집이 장독이 듯집이 암툭이영 막 왕 걸어젼 다 들러데껴 벗저.”

“아이고 요 성님. 그거 무사 경 들러데kick데가?”

경허난 이제 성이 부에가 나네. 이젠 또 두 번차 가멍

“어멍이라도 왓거들랑 끌아앗아 죽여봅서.”

아시가 성?라 경 골은 거라이 경 허난 어멍은 이제 꿩 잡으레 갓젠헨. 정심 을 헹 아덜아시 전 온거 아니. 정 오난게 어멍을 오꽃 끌아앗안 죽여분 거라. 그 큰아덜이, 큰아덜이 경 헹 왕 보난 어이가 엇인 거주게. 어이가 엊어네. 그 어멍을 이제 어느 밧데레 이제 끗어다가 놔두고 이젠 그디 간 영 눕져 동, 어멍이 이제 묻으라 허면은 이제 뭐 때거리가 엊일 거 아니게. 때거리가 엊이난, 이제 요 동네 강 도독질이라도 헤 와야 이 어멍을 동네 사름 빌엉 허겟다 헤연 결심을 아시가 헨. 잘 사는 집이 이제 쌀을 이제 도독질을 허례 간 거라. 밤중에, 밤중에 간

“성님, 성님이랑 자리 마다리랑 벌깁서. 나랑 쌀을 푸케메.”

게난, 이젠 마다리를 벌이난 아, 요 아시가 영 혼 솔박 걸령 놓으멍  
“혼 솔박.”

허민

“혼 솔박.”

“두 솔박.”

허민

“두 솔박.”

허당 보난, 주연은 오꽃 알아먹어 분 거라게. 게난에 도독 들엇젠헤난에, 아신 뛰어나가네. 도세기막에 강 곱곡 그 성은 그 옛날은 웨아지 질러난 이제 그저 돌 놔가지고 대변도 보고 막 뭐헤나지 안 현? 웨아지, 통쉐 통쉐, 경 허난 그 똥 누는 지들팡 아래 곱았던 모냥이라. 곱아나난 강 똥을 간 바락허게 싸니깐 그지 우터레 간 거 아니게

“아이고 나 머리에 베락이 떨어졌저.”

헹, 성이 막 웨연, 웨연 보난 경 똥을 질례지난, 이젠 경 헹 그 아시가 주연? 라 경 굽은 거라. 사실을 경 굽으니깐 그 주연은 흐는 것이 너무 이제 아덜이 그득허니깐 쌀을 준 거라.

“이 쌀을 앗안 강 이제 어멍을 감장을 허라.”

게 이젠 쌀을 주난, 이젠 그 쌀을 앗아 완 죽을 쑨 거라. 아시가 죽을 쑤다가 성?라 곤는 말이

“요 동네덜 어른덜 우리집이 와그네 이제 음식을 자셔그네 우리 어멍 강 흐쌀 묻어주렌 강 골읍서. 난 이 죽을 쑤크메.”

경 허난, 경 허렌 아 이젠 성?라 굽으난 성은 이젠 그 동네 체죽허레 간

“동네 어른덜 와그네 우리집이 와그네 식사를 헹 우리 어머니 감장해주소.”

해시믄 혈 건디

“이 동네 늙은이덜 우리집이 오렌 햅우다.”

허멍 이제 막 골아부난, 하나토 안 온 거라게, 하나토 안 오난, 아신

“뭐렌 간 골아네 이제 이 동네 사름을 하나도 안 오게 멘들암네?”

허난, 아 영 정 영 곤고렌, 아 경 허나난

“아 이 성님아. 경 골양 누게가 옵네겐? 사름을 쫌 사정하는 얘기를 해야지. 그렇게 허면은 누게가 옵네겐? 경 허들랑 이 죽을 쑤없이민 나가 강 동네 사름 돌아오쿠다.”

아 이젠 헤나난 아시 쑤던 죽을 성?라 쑤렌 헤돈 아시는 이젠 그 동네 어른덜 청허레 가 분 거 아니 죽 썬가민 발탁발탁허잖아. 발탁발탁허난 그 성은 지네 아방 말 골않젠헤난 솟고냥을 몬딱 뜰라분 거라. 죽을 알러레 밋밋. 경 헹 헷단다. 옛날에.

- 핵심어 : 꿩, 성제, 쌀, 도독질, 도세기막, 통쉐